

여성의 이름과 정체성의 문제

— 프랜씨즈 버니의 『세실리아』론

김 정 미

프랜씨즈 버니(Frances Burney, 1752-1840)는 흔히 패니 버니(Fanny Burney) 혹은 마담 다블레이(Madame d'Arbly)라고 알려진 영국 여성작가이다. 종래의 영국문학사에서 버니는 새뮤엘 존슨(Samuel Johnson) 류의 “도덕주의적” 작가로, 18세기의 주요한 남성소설가들과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사이에 묻혀 아예 거론되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적 인물”(a transitional figure)¹⁾ 정도로 언급되곤 했다. 그런데 1970년대 이래로 여성론 비평은 버니를 재평가하면서 버니 문학의 사회비판, 18세기 여성 소설가로서 겪은 어려움과 갈등 등에 주목해 왔다.²⁾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버니 연구자들이 우선 버니의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두디(Margaret Anne Doody)에 따르면 정작 버니 자신은 ‘패니’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패니’라는 이름을 써왔으며, 이 이름은 “알잡아보는 애칭”(a patronizing diminutive)으로 “많은 평자들이 원하는대로 작가가 악의

-
- 1) Susan Staves, “Evelina; or, Female Difficulties,” *Modern Philology* 73(1976), 368.
 - 2) Judith Lowder Newton, “Evelina: or, The History of a Young Lady's Entrance into the Marriage Market,” *Modern Language Studies* 6(1976), 48-56; Patricia Meyer Spacks, “Dynamics of Fear: Fanny Burney,” *Imagining a Self: Autobiography and Novel in Eighteenth-Century England*(Cambridge: Harvard UP, 1976), 158-92; Mary Poovey, “Fathers and Daughters: The Trauma of Growing Up Female,” *Men and Women*, ed. Janet Todd(New York: Holmes & Meier, 1981), 162-74; Kristina Straub, *Divided Fictions: Fanny Burney and Feminine Strategy*(Lexington: UP of Kentucky, 1987); Judy Simons, *Fanny Burney*(Totowa: Barnes & Noble, 1987); Margaret Anne Doody, *Frances Burney: The Life in the Works*(New Brunswick: Rutgers UP, 1988); Julia Epstein, *The Iron Pen: Frances Burney and the Politics of Women's Writing*(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Katharine M. Rogers, *Frances Burney: The World of 'Female Difficulties'*(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0); Claudia L. Johnson, *Equivocal Beings: Politics, Gender, and Sentimentality in the 1790s: Wollstonecraft, Radcliffe, Burney, Austen*(Chicago: U of Chicago P, 1995).

없고 어린애같으며 그저 아는 체하는 미성숙한 여성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는 비유컨대 마치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의 여주인공이 소설가로 나선 것처럼 들린다.”³⁾ 버니 사후에 출판된 일기들은 ‘패니’라는 애칭을 친숙하게 만들면서 재치있는 수다장이의 명성을 높이는 가운데 소설가의 모습을 퇴색시켰으며, 버니의 작품이 후기로 갈수록 문학적 성취도가 떨어진다 고 생각하는 기존의 비평가들은 재기발랄하던 ‘패니 버니’가 도덕주의적인 ‘마담 다블레이’로 “영락”했다고 아쉬워한다.⁴⁾ 두디와 엡스타인(*Julia Epstein*)이 작가의 본래 이름인 ‘프랜씨즈’를 되찾아 주려는 것은 기존의 버니 연구가 보여준 선입관을 배제하는 비평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버니는 1778년 『이블라이너』(*Evelina*)가 크게 인기를 얻은 이후 『씨실리아』(*Cecilia*, 1782), 『까밀라』(*Camilla*, 1796), 『방랑자』(*The Wanderer*, 1814) 등 3편의 소설을 차례로 발표하는데, 이 시기는 영국소설사에서 소위 “공백기”로 처리되어왔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스몰릿(*T. Smollett*)이 『험프리 클링커』(*Humphry Clinker*)를 발표하고 죽은 1771년부터 제인 오스틴이 첫 작품을 출판한 1811년까지의 40년은 18세기의 주요 남성 소설가 5명, 즉 디포우(*D. Defoe*), 리차드슨(*S. Richardson*), 필딩(*H. Fielding*), 스텐(*L. Sterne*), 스몰릿 이후 주목할 만한 영국소설이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당시에 작가와 독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여성들에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소설’ 장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폄하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 ‘암흑기’에는 소설의 생산과 소비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소설에 대한 비판과 경멸이 가장 심했으며, 특히 소설과 여성이 동일시되어 “여자들의 형식”(feminine form)인 소설은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문학적인 가치도 없다고 비난받았다.⁵⁾ 버니의 소설 역시 어리고 순진하며 ‘여성다운’ 특성, 예컨대 이블라이너(*Evelina*) 같은 모습으로 대표되며 인기와 비난을 두루 받았다.

버니의 마지막 소설 『방랑자』에 관한 해즐릿(*William Hazlitt*)과 크로커(*John Wilson Croker*)의 비평은 버니가 여성소설가로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인물의 특이함이나 기이함을 더 빨

3) Doody, *Frances Burney*, 6.

4) Epstein, *Iron Pen*, 3.

5) Terry Lovell, *Consuming Fiction*(London: Verso, 1987), Ch. 1, 2 참조.

리 인식하며,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거나 확립된 관습에서 일탈한 데에서 비롯되는 우스꽝스러움에 훨씬 더 민감하다. ... 그들 정신의 표면은 그들의 신체 표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섬세한 결을 지닌 듯하다. 더 부드럽고 직접적 인상에 민감한 것이다. 그들은 근력이 떨어지며, 지속적인 자발적인 주의력을 덜 가지고 있고, 이성, 열정과 상상력도 모자란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감각이나 습관적 편견에 호소하는 것에 쉽게 감동한다. 그들 마음의 직관적 인식은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추론에 덜 좌우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어의 특성을 단지 기계적인 암기로 체득하듯이, 원리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채 인물과 풍속의 특성을 인식한다.

Women, in general, have a quicker perception of any oddity or singularity of character than men, and are more alive to every absurdity which arises from a violation of the rules of society, or a deviation from established custom. . . . The surface of their minds, like that of their bodies, seems of a finer texture than ours; more soft, and susceptible of immediate impression. They have less muscular power, — less power of continued voluntary attention, — of reason — passion and imagination: But they are more easily impressed with whatever appeals to their senses or habitual prejudices. The intuitive perception of their minds is less disturbed by any general reasonings on causes or consequences. They learn the idiom of character and manner, as they acquire that of language, by rote merely, without troubling themselves about the principles.⁶⁾

방랑자(『방랑자』의 주인공 줄리엣 — 인용자)는 이블라이너와 동일한 특질은 지니고 있지만, 늙은 이블라이너의 특성을 갖고 있다. 발랄함, 청순함, 우아함, ‘사랑의 자춧빛’은 사라지고 없다. 눈은 그대로 있으나 침침하고, 뺨은 있으나 움푹 패었고, 입술은 있으나 시들었다.

The Wanderer has the identical features of Evelina — but of Evelina grown old; the vivacity, the bloom, the elegance, ‘the purple light of love’ are vanished; the eyes are there, but they are dim; the cheek, but

6) William Hazlitt, *Edinburgh Review* 24(February 1815), 337. Epstein, *Iron Pen*, 211면에서 재인용.

it is furrowed, the lips, but they are withered.⁷⁾

해즐릿이 “즉각적인 관찰”에 능한 버니를 “천상 여자”(a very woman)로 보고 버니 여주인공들이 연루되는 소위 “여성의 곤경”이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created out of nothing) 곤경이며 여성소설가가 “재잘거리는 여흥꾼”(prattling entertainer)으로서 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다면, 크로커에게 버니의 소설은 “그녀의 육체의 반영에 불과”⁸⁾하여 작품과 62살의 여성작가, “소설가와 여자로서 한물 간”⁹⁾ 버니가 동일시되고 있다.

버니가 문단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느냐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패니 버니’나 ‘마담 다블레이’가 아닌 프랜씨즈 버니의 이름을 되살리는 것은 버니 자신이 일련의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호칭(naming) 문제를 제기한 것과 맞물린다. 『이블라이너』의 경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주인공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姓)을 되찾고 동시에 결혼을 통해 다시 다른 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씨실리아』는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결혼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은 씨실리아가 소위 이 ‘호칭조항’(naming clause) 때문에 어떤 굴곡을 겪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여성의 곤경”(Female Difficulties)이라는 부제가 붙은 『방랑자』에서 줄리엣은 이름과 재산, 사회적 지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겪는 위기를 대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씨실리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려는 이유는 출판 당시에 하나의 ‘사건’일 정도로 주목받고 인기를 끌었으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는데도 1970년대에 여성론 비평 덕분에 다시 빛을 보기까지 2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이 작품이 오히려 『이블라이너』보다 더 절박하게 당대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격변, 영국에 미친 프랑스 혁명의 여파와 여주인공의 고난을 연결지어려는”¹⁰⁾ 야심찬 소설 『방랑자』의 ‘실패’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씨실리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씨실리아 베벌리(Cecilia Beverley)는 성인 자격을 얻는 21세가 되기 직전의 고아로 4년전 죽은 아버지로부터 10,000파운드를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

7) John Wilson Croker, *Quarterly Review* 11(April 1814): 125-26. Doody, *Frances Burney*, 335면에서 재인용.

8) Doody, *Frances Burney*, 335.

9) Claudia L. Johnson, *Jane Austen: Women Politics and the Novel*(Chicago: U of Chicago P, 1988), xv.

10) Johnson, *Equivocal Beings*, 166.

라 그 후로 자신을 맡고 있던 목사인 아저씨도 몇 주 전에 죽으면서 그녀 앞으로 일년에 3,000파운드 수입의 부동산을 남겨주었다. 그런데 아저씨의 유산을 상속받은 씨실리아에게는 “결혼할 경우에 그녀의 성이 그녀의 결혼과 재산에 따라가도록 한다는 단서조항 외에는” (with no other restriction than that of annexing her name, if she married, to the disposal of her hand and her riches)¹¹⁾ 다른 조건이 없다고 묘사된다. 3인칭 화자가 앞뒤 부연설명없이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이 조건은 가볍게 덧붙여진 외형과는 달리 씨실리아의 앞길에 결정적인 “제약” (restriction)이 된다. 더군다나 이 조항에 붙어 있는 또다른 ‘제약’, 즉 씨실리아가 결혼을 해서 이름을 바꿀 때는 물론이고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부동산이 그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상속조건이 작품 결말에서야 드러남으로써 씨실리아를 더욱 곤경에 몰아넣는 계기가 된다.

『씨실리아』의 주해(註解, Explanatory Notes)를 단 피터 세이보(Peter Sabor)와 두디는 이런 세부적인 단서가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도 씨실리아의 아저씨가 바라는 것은 “주로 씨실리아에게 이득을 주기보다는 그의 성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유연장의 일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맨 첫 페이지에 무심한 듯 끼어있는 유연장의 호칭조항이 유일한 제약이라고 생각했던 독자로서는 사실 여자의 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혼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이라 또다른 제약을 연이어 떠올릴 수 없었다. 아니 독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씨실리아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씨실리아는 오래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델빌(Delville)가의 아들 모티머(Mortimer)와 사랑하면서도 여자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결혼 조건으로 인해 모티머와 비밀결혼을 한 상황에서 변호사로부터 상속의 조건을 듣고는 큰 혼란에 빠진다. 사실 비밀결혼도 이미 두 번이나 시도했던 것으로, 모티머가 자신의 성을 버리되 집안엔 비밀로 하는 결혼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는 씨실리아가 유산을 포기하지만 여전히 모티머의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비밀결혼을 한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 비밀결혼의 이야기가 얽혀들면서부터 씨실리아는 매사에 갈등하고 당황하며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친구 남편이자 씨실

11) Frances Burney, *Cecilia, or Memoirs of an Heiress*, ed. Peter Sabor & Margaret Anne Doody(Oxford: Oxford UP, 1988), 5-6.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 괄호 안에 면수만 표시함.

리아의 후견인 중 하나인 해럴(Harrel)의 방탕한 면모를 알아보고도 그에게 속고, 또 어릴 적 친구와 맺은 정에 이끌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어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모두 날려버리는 씨실리아를 이미 지켜본 독자로서는, 작품 서두에서 그녀가 뛰어난 지성과 감수성의 소유자(6)라던 화자의 칭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씨실리아는 시골에서 런던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해럴 집에서 베푸는 사교생활에 질려,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없이 새 것에 대한 호기심과 냉담함만 반복되는 사교계 사람들을 “삶의 파괴자”(the underminers of existence) (55)라고 규정하고, 해럴이 자신의 시골별장 공사를 한 일꾼들에게 급료를 전혀 주지 않고 발뺌하는 것을 “냉혹”하고(76) “부당”하며 “비인간적”(85)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할 정도로 판단이 정확하다. 빛에 물린 해럴이 자살한 후에도 침착하게 뒷처리를 맡아함으로써 “양식과 미덕이 결합되었을 때만 가능한 온당한 정신”(propriety of mind as can only result from the union of good sense with virtue) (425)을 보여주었다는 칭찬을 받기도 한다. 이런 씨실리아의 모습은 화자의 판단을 뒷받침해주고도 남지만, 모티머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 씨실리아는 자신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또 결정을 하더라도 감정에 크게 좌우되거나 모티머에게 이끌리는 면을 보인다.

사실 모티머는 애당초 가문의 명예라는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많이 좌우되는 우유부단한 인물로서 씨실리아의 덕목에 비추어 볼 때 맞상대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그녀와 비밀리에 결혼한 직후에도 몽크톤(Monckton) (씨실리아가 있던 시골의 귀족 집안 젊은이로 부와 권력에 대한 야심 때문에 40여년 정도 연상인 67살의 귀족 미망인과 결혼하고서도 씨실리아의 미모와 재산을 노리는 인물)의 위선과 씨실리아에 대한 야심을 확인하고서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투를 청한다. 모티머는 비밀 결혼을 했으면서도 몽크톤에게 자신이 씨실리아의 남편이 되었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그에게 위협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씨실리아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고나서는(845),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일의 뒷수습 방법까지 다그쳐 물어보면서 급기야는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다. (847) 작품 결말에서 또다시 모티머 때문에 궁지에 몰린 씨실리아가 미치게 되는 것도(896) 이 사건에서 비롯된 충격의 연장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는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씨실리아는 유산의 그다음 상속자인 에글스톤(Eggleston)의 변호사로부터 상속의 또다른 조건을 전해듣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작가가 상속의 세부적인 제약을 미리 밝히지 않고 있다가 씨실리아의 혼돈과 불안정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을 택해 의도적으로 터뜨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대목은 씨실리아가 결혼했다는 것을 자인하게 하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름부터 물어보는 변호사와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려는 씨실리아의 대화가 군더더기없이 빠르게 이어짐으로써 극적 긴장을 더해 준다.

“부인, 실례지만 이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름이요?”

“부탁인데 이름을 말해주시죠, 부인.”

“그것도 모르고 여기 오셨잖아요?”

“소문으로만 알 뿐입니다, 부인.”

“맞추기 아주 쉬운 문제에서는 소문이 좀처럼 틀리질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름을 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녀는 조금 망설이며 외쳤다, “당신은 이 집에 오지 못했을 텐데요, 집주인이 씨실리아 베벌리라는걸 모르고서는요.”

“그것은 당신의 결혼 전 이름이지요, 부인.”

“결혼 전 이름이라니요?” 그녀는 놀라 소리쳤다.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인?”

“결혼했다고요?” 그녀가 되풀이할 때 뺨은 진홍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당신 남편의 성이지요.”

... “저는 당신이 자식없이 죽거나, 결혼하여 성을 바꿀 경우 당신 아저씨의 유언에 따라 이 부동산의 다음 상속인이 되는 에글스턴씨의 대리자로 부인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가 물어볼 권리, 부인께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이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 너무 ... 너무 예상치 못해서 ...” 씨실리아는 말을 더듬었다.

“부인, 이런 경우, 요점에 바로 가깝게 가는 것이 방법이지요. 결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씨실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물어 보는데 결혼 사실을 부인하자니 여러모로 도리에 맞지 않았

고, 지금의 처지에서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휘말릴 것이었다.

"May I take the liberty, madam, to ask your name?"

"My name, sir?"

"You will do me a favour, madam, by telling it me."

"Is it possible you are come hither without already knowing it?"

"I know it only by common report, madam."

"Common report, sir, I believe is seldom wrong in a matter where to be right is so easy."

"Have you any objection, madam, to telling me your name?"

...

"Well, sir," cried she with some hesitaion, "you can scarce have come to this house, without knowing that its owner is Cecilia Beverley."

"That, madam, is your maiden name."

"My maiden name?" cried she, starting.

"Are you not married, madam?"

"Married, sir?" she repeated, while her cheeks were the colour of scarlet.

"It is, properly, therefore, madam, the name of your husband that I mean to ask."

... "I am deputed, madam, to wait upon you by Mr. Eggleston, the next heir to this estate, by your uncle's will, if you die without children, or change your name when you marry. His authority of enquiry, madam, I presume you will allow, and he has vested it in me by a letter of attorney."

...

"This demand, sir," said Cecilia, stammering, "is so extremely--so--so little expected--"

"The way, madam, in these cases, is to keep pretty closely to the point; are you married or are you not?"

Cecilia, quite confounded, made no answer: to disavow her marriage, when thus formally called upon, was every way unjustifiable; to acknowledge it in her present situation, would involve her in difficulties innumerable. (853-854)

씨실리아 베벌리나 씨실리아 델빌이나의 문제는 단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중심문제”가 되고 있다.¹²⁾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날린 씨실리아로서는 비밀결혼이 밝혀진 이상 아저씨의 유산마저 내줄 수밖에 없는데, 남편인 모티머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그녀를 남겨두고 외국으로 가려는 참이다. 에글스턴과 변호사는 씨실리아에게 상속 포기뿐만 아니라 처음 비밀결혼을 시도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약 일곱달 동안 상속조건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환급금(refund)까지 요구하며 그녀를 몰아부치게 된다. 씨실리아가 이렇게 생활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궁지에 이르러 당황하는 것은 비밀결혼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작품 초반에서 해럴 집안의 반복적인 사교에 질린 씨실리아가 자신의 “판단”으로 어느 후견인의 집에 있을지 “결정”(56)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유”를 바르게 쓸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고 확신하는 대목은 이미 그녀의 소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52-59)

씨실리아는 상속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서 오직 “자선 일꾼”(an agent of charity) (56)으로서 바른 일을 행하려는 의무감에 불타 있었다. 조건없이 물려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쓰고 난 후에도 그녀는 아저씨의 유산이 있기에 자신의 “독립적인 상황”이 결혼시장에서 팔리는 신세를 면해주었다고 기뻐한다. (468) 자신의 성을 이어받게 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려던 아저씨의 욕망이 상속조건에 제한이라는 복병으로 드러나자, 그렇지 않아도 호칭조항 때문에 결혼 사실도 속인 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져 있던 씨실리아는 경제적 기반마저 위협받는 것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상속과 독립의 문제는 여성 자체를 물건으로 보는 사회의 시각과 맞물려 있다. 돈 많고 나이도 많은 미망인과 결혼한 몽크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씨실리아를 “그의 미래의 재산”(9)으로 점찍어 놓았건만 부인이 예상처럼 빨리 죽어주지 않자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뺏길까봐 애가 탄다. 씨실리아가 해럴의 노름빚을 갚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 돈을 “헤프게 쓰는”(sport away) (771) 것을 보고는 마치 자신의 재산이 낭비되는 듯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계속적인 결혼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사회가 묵과”¹³⁾하는 데에는 몽크톤의 노련한 위장이

12) Epstein, *Iron Pen*, 152.

13) Doody, *Frances Burney*, 111.

한 몫을 하지만, 씨실리아의 집요한 구혼자인 로버트 플로이어(Sir Robert Floyer)나 그에게 씨실리아를 넘겨줄 것처럼 흥정하면서 필요한 돈을 얻어내는 해럴의 여성관 역시 몽크톤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면 몽크톤이 예외적인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된다. 더우기 몽크톤은 생각과 표현, 행동의 자유를 원하는 벨필드(Belfield)에게 사회의 규범과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맞서는데(732-36) 이 대목은 몽크톤이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체화한 인물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씨실리아가 사교계에 등장하자마자 플로이어는 그녀를 관심의 표적으로 삼는다. 그녀가 아름답거나 새로운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거래 순간에 흥정하려는 재산의 흠을 찾는 눈길로 바라보는 남자의 세밀한 관찰력”(the scrutinizing observation of a man on his point of making a bargain, who views with fault-seeking eyes the property he means to cheapen) (34) 을 발휘하여 그녀의 재산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거래할 상품으로 여성을 보는 플로이어의 말투는 작품에서 “장사꾼”(401)으로 나오는 홉슨(Hobson)을 연상시킨다. 말의 끝을 항상 곱셈 “삼 곱하기 오는 십오요”(410)라고 맺는 버릇이 있는 홉슨은 “내 것은 내 것이요,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447)라는 단순명쾌한 재산권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돈을 값지 않은 채 자살한 해럴의 행동이 신사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를 어렵게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447) 홉슨은 18세기 말 영국의 급속히 발전하던 상업주의의 속성을 희화화한 인물인데,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과 감언이설로 여자를 얻는 것을 등치시키며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갈파하는(883) 논리는 몽크톤이나 플로이어의 생각과 상통한다. 여자가 돈을 소유하거나 상속을 받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는 홉슨의 불평은(883) 거액의 상속을 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의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기는 탐욕의 또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씨실리아와 결혼을 고집하는 이유로 애정을 내세우는 모티머도 이 협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티머는 자기 가문의 명성과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자부심과 씨실리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과 번복을 거듭한다. 그는 “나 자신의 명예는 내 가문의 명예에 묶여 있다”(My honour in the honour of my family is bound) (512)면서 델빌이 아니라 베벌리로 성을 바꾸어야 하는 결혼조건이 “야만적이고 불쾌한 조항”이며 결혼을 통해 “최고의 여성”을 얻을지는 몰라도 자신과 집안의 명예는 영원히 더럽혀질 것이라고 고민한다. 씨실리아는 모티머의 행동이 “대대로 물려받은 오만함의 강한 선

동”(the powerful instigation of hereditary arrogance) (515) 탓이라고 즉각 판단하면서 한때 그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후 모티머의 첫 번째 비밀결혼 제의는 자신의 존재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델빌 가문의 명예를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결단과 그러면서도 결코 집안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주저앉는 소극성 사이에서 나온 타협책이다. “내 생득권(生得權)을 포기하면 내가 위치한 지위로부터 도망가는 것같았다”(The renunciation of my birth-right seemed a desertion of the post in which I was stationed) (562)는 모티머의 고백은 이 “타협책”을 내놓는 자체도 그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결심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런데 작가는 이 시기에 결혼을 성사시키지 않고 모티머에게 두번째로 비밀결혼을 제의하게 함으로써 그의 “타협”조차 불안정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씨실리아가 아저씨 유산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803)이 결혼 조건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거듭한다 뿐이지 모티머 역시 여성을, 아내를 자신의 가문과 명성을 지속시키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당대의 여성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비밀결혼 이후에도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모티머의 질투와 오해는 자신의 아내가 “천사처럼 흠없는”(888) 사람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욕심에서 빚어지는 터무니없는 것들이며, 씨실리아를 미치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작품 초반으로 돌아가보면 가장무도회에서 흰색 옷(white domino)으로 꾸민 모티머가 씨실리아에게 자신이 입은 옷의 색깔만큼이나 “해가 되지 않는”(116)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아이러니컬하게 들린다. 하얀색은 모티머 “자신도 모르는 강박관념, 즉 순수하고 얽매이지 않고 때묻지 않고 싶은 그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젊은이가 자기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의존해야 하며 자기 스스로는 정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¹⁴⁾

부와 명성에 대한 집착이 보수적인 여성관을 동반한다는 점은 작품의 다른 중요인물들에서도 확인된다. 씨실리아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후견인 브릭스(Briggs)는 여자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180), 씨실리아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요구해도 차라리 돈을 잘 관리해 줄 남편을 구해 주겠다고 할 정도다. (96) “어려운 시절! 남자들은 부족해! 전쟁과 혼란! 주식은 형편없고! 여자 밑으로는 돈이 많이 들고!”(hard times! men scarce! wars and tumults! stocks low! women chargeable!) (96)라는 그의 현실 분석은 18세기의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상

14) Doody, *Frances Burney*, 134.

인계급 남성들에게서 흔히 확인되는데, 가정생활이나 옷, 오락에 돈이 들고 안정된 생활과 과부 재산(jointure)까지 생각할 때 돈 많은 남편감을 바라기 때문에 여자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여겼다는 것이다.¹⁵⁾ 또다른 후견인 이자 모티머의 아버지인 델빌은 가문의 명예로 무장하고 마치 봉건군주처럼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458) 그의 시골별장인 델빌 성(城)이 낡고 쇠락하여 “개선”(improvement)이 필요한 것처럼 (457) 델빌 또한 구시대적인 인물인데, “방금 밑바닥 무명 신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people but just rising from dust and obscurity) (187)인 브릭스나 해럴을 경멸하면서도 여성을 바라보는 기준만은 서로 일치한다. 씨실리아에게 책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시간낭비요 돈도 안되는 쓰레기같은 것(181)이라고 일축하는 브릭스나, 여자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태틀러』(Tatler), 『가디언』(Guardian)이면 충분하지 다른 책을 사볼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반대하는 델빌(186) 모두 여성의 공간으로 가정 이외의 영역을 생각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작 씨실리아 본인은 냉철한 판단력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유산이 곧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해럴 부부의 방탕한 사교생활의 맹점을 바로 알아차리면서도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해럴에게 다 털린 후에야 이 부부로부터 자유로워졌다거나, 플로리어를 비롯한 귀족들의 정체를 꿰뚫어보면서도 몽크톤의 이중성은 결말에 가까워셔야 알아본 점 등은 씨실리아가 지닌 인식의 한계를 입증한다. 그런데 모티머가 결국 자신의 성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오히려 씨실리아에게 아저씨의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유산 만 파운드만 갖고 시집을 것을 제안했을 때 그녀가 당황하는 대목은(804) 씨실리아의 곤경의 원인을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의 제안은 “참혹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인데, 사실 “지금까지 그녀를 비참하게만 했던” 아저씨의 유산은 “당장이라도” 포기하겠지만 아버지의 유산조차도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럴의 노름빚을 갚는데 얽혀들어난 그 돈은 결국 씨실리아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이 사실을 모르는 모티머의 제안 앞에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괴로움을 느끼게 한다. (804) 애당초 씨실리아에게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상속에 대한 자부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상속을 다 포기하고 난 후에도 고통을 겪는 과정은 씨실리아 개인의 의식 문제

15) Burney, *Cecilia*, 966.

로만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친 상태로 모티머를 찾아 헤매면서 군중들 속에서 주머니도 다 털린 채 “매춘부”(897)로 오해받던 씨실리아는 결국 ‘미친 여자의 주인을 찾는’ 신문광고의 주인공 신세가 되고 만다. (901) 잃어버린 개나 말을 찾는 일이 더 혼했던 당시의 신문광고난¹⁶⁾에 씨실리아도 하나의 ‘분실물’이 된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낯선 군중 속에서 길거리를 헤매는 장면 (896-900)은 극적으로 긴박하게 제시됨으로써, 연이은 결말에서 정식으로 모티머 부인이 되고 난 후 맥빠진 씨실리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씨실리아가 비탄에 빠지는 대목은 평자에 따라 로맨스 장르의 주인공들이 으레 겪는 시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¹⁷⁾ 당시 유행하던 감상적인 소설의 컨벤션으로 볼 수도 있다.¹⁸⁾ 그런데 작품 마무리에서 씨실리아의 ‘행복’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이런 손쉬운 판단을 주저하게 만든다.

씨실리아의 끈은 마음, 그녀의 순수함, 미덕, 그리고 소망의 절제는 그녀에게 델빌 부인의 따뜻한 사랑과 모티머의 끊임없는 애정 안에서 인간의 삶이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모두 그녀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것일 뿐이고,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녀는 때로 가족 모두가 그녀의 재산 상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때로는 그녀 자신도 상속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씨실리아는 결혼 후 델빌 집안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는다 — 필자 주) 자신의 상속분(지참금)이 없음을 불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세상 전체를 이성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행복이든 그것을 가진 몇 안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불행이 없지 않음을 알고는, 유한한 인간의 불평하는 한숨이 올라오는 것을 억눌렀으며, 대체적인 행복에 감사하고 부분

16) Burney, *Cecilia*, 1003.

17) Martha G. Brown, “Fanny Burney’s ‘Feminism’: Gender or Genre?” in Marky Anne Schofield & Cecilia Macheski eds., *Fetter’d or Free: British Women Novelists, 1670-1815*(Athens: Ohio UP, 1986), 29-39.

18) “. . . she finds herself penniless in a hackney-coach in London, with nowhere to drive to, with a rising fever and an injured reputation. The next step, of course, is distraction. Sometimes she dies. It became the fashion to conclude a novel with a funeral. “The heroes and heroines must all be buried,” said the *Monthly* in 1787. Or the author conciliates all tastes by providing a hearse for one pair of lovers and wedding-bells for the other.” J. M. S. Tompkins, *The Popular Novel in England 1770-1800*(Lincoln: U of Nebraska P, 1932), 103.

적인 불행을 기꺼이 체념하며 인내했다.

The upright mind of Cecilia, her purity, her virtue, and the moderation of her wishes, gave to her in the warm affection of Lady Delvile, and the unremitting fondness of Mortimer, all the happiness human life seems capable of receiving: — yet human it was, and as such imperfect! she knew that, at times, the whole family must murmur at her loss of fortune, and at times she murmured herself to be thus portionless, tho' an HEIRESS. Rationally, however, she surveyed the world at large, and finding that of the few who had any happiness, there were none without some misery, she checked the rising sigh of repining mortality, and, grateful with general felicity, bore partial evil with chearfullest resignation. (941)

이름과 재산, 독립적인 생활 모두를 '약탈' 당한 여주인공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이름과 재산을 '보상' 받았는데도 3인칭 화자의 냉정한 시선은 작품의 행복한 결말을 약속해주지 않는다. 18세기 당대의 가부장제와 상업주의가 폭력적으로 여성의 삶을 해체시키고 또 자의적으로 재구성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작가가 수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보적인 화자의 태도처럼 버니의 사회비판은 노골적이거나 전면적이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체념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함'은 오히려 버니 특유의 글쓰기 전략이며 엡스타인의 표현을 빌면 "은밀한 적대성" (the covert hostility)¹⁹⁾이다.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소설가로서 사회의 모순된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해소하려 했던 버니의 작품은 한층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19) Epstein, *Iron Pen*, 194.